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김혜미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4년 9월 9일 월요일 104호

2면 대학
우리 손으로 뽑는 대학 마스코트 · · · 공식 사용은 시기상조?
나를 이해하는 길 '학생 상담 센터'

3면 여론
학점 교류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 어디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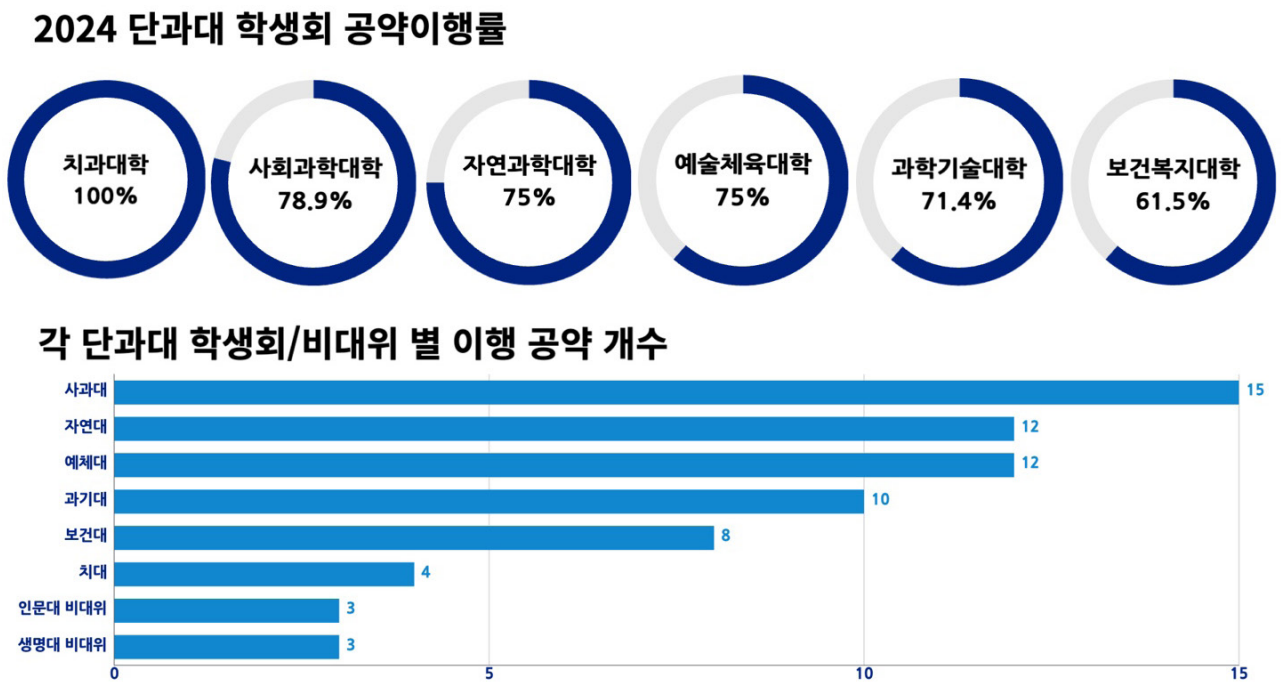
4면 사회
막막한 취업의 길,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재활용 교환하고 생필품 받아 가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지역화폐

5면 보도
대남 오물 풍선과 GPS 교란, 회색지대 전략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청년 당뇨, 그 원인과 예방법은?

6면 인터뷰
급발진 사고로 떠나보낸 아들…입증 책임은 유가족 몫

단과대 학생회 공약 이행률 '평균 77%'

물품대여, SNS 활성화, 간식 행사…비대위 단과대 복지 줄어



우리 대학 단과대 학생회의 공약은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

본지가 우리 대학 단과대 학생회의 올해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이행률은 평균 76.96%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회와 달리 공약 없이 운영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선 학생 복지 이행에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학생회가 제공하는 학생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본지는 9개 단과대 중 6개 단과대 학생회의 공약 이행률과 2개 단과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학생 복지 활동을 점검했다. 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사과대 학생회 공약 19개 중 15개 이행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인 '사랑'은 19개 공약 중 ▲복지 물품 대여 ▲체육 물품 대여 ▲월간 사과대 게시 ▲월간 캘린더 게시 ▲예산내역서 공개 ▲학생회 회의록 공개 ▲SNS 계정 활성화 ▲SNS 경품행사 ▲찾아가는 경품행사 진행 ▲사회과학대 체육대회 개최 ▲시험 기간 강의실 개방 ▲시험 기간 간식 제공 등 15개 공약을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1학기부터 현재까지 우산, 담요, 고데기, 보조배터리 등 복지 물품과 구기종목에 필요한 각종 공, 팀 조끼, 골키퍼장갑 같은 체육물품을 상시로 빌려주고 있다. 예산내역서와 회의록을 인스타그램 링크트리에 공개하는 등 SNS 계정을 활성화하기도 했다.

3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뒤풀이 장소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시험기간 전주에는 사회과학대학 강의실을 대여해 학우들이 학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자연대 학생회 화장실 가글 관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인 '위하여'는 16개 공약 중 ▲물품 대여 강화 ▲자연과학대학 분기별 점검 및 청소 ▲화장실 디퓨저 설치 ▲화장실 가글·물비누 관리 ▲회의록 공개 ▲SNS 팔로우 이벤트 진행 ▲〈자대매거진〉 게시 ▲〈가까워진 자연대〉 진행 ▲시험 기간 강의실 개방 ▲체육대회 개최 ▲간식행사 진행 등 12개 공약을 이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화장실 부분이다. '위하여'는 화장실에 디퓨저를 설치했고, 물비누뿐만 아니라 가글도 비치하고 있다. 1월부터 한 달 주기로 회의록과 학사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대매거진〉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고 있기도 하다.

4월에는 계산기, 보드게임, 고데기, 우산, 체육용품 등 학우들의 수요가 높은 대여 물품을 추가 비치했다. '위하여'는 시험 기간에 강의실을 개방하고, 열품타(열정 품은 타이머) 챌린지를 통해 학습 시간이 가장 긴 학우에게 치킨을 주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치과대 학생회 휴게실 신설

치과대학 학생회인 '사명'은 4개 공약 중 ▲학생 휴게실 정비 ▲프린터 사용 여건 개선 ▲SNS를 통한 학생들과의 긴밀한 소통 ▲간식 제공 등 4개 공약을 이행했다.

'사명'은 학생 휴게실 정비로 본과 1학년 휴게실과 본과 2학년 휴게실을 신설하였다. 프린터실의 고장난 프린터를 즉각 수리하고 사용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SNS 계정으로 단과대학 행사를 공지하고 있다.

예체대 학생회 전공 서적 할인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인 '백월'은 16개 공약 중 ▲발대식 개최 ▲체육대회 개최 ▲시험 기간 간식 제공 ▲단과대학 행사'의 당첨자 인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과기대 학생회 자격증 재응시비 지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인 '항해'는 14개 공약 중 ▲물품 대여 ▲가글 디스펜서·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설치 ▲자격증 재응시비 지원 ▲월별 캘린더 게시 ▲성과 간담회 진행 ▲공약 이행률 표시 ▲자격증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 개설 ▲아이디어 박스 설치 ▲e-스포츠 대회 개최 ▲생월자 이벤트 진행 등 10개 공약을 이행했다.

'항해'는 5월에 자격증 재응시비 지원을 진행하여 자격증 시험의 1차 시험에 떨어진 학우들을 대상으로 시험 재응시비 15,000원을 지급했다. 1학기부터 충전기, 우산, 공학용 계산기, 체육물품 등 물품 대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항해'는 과학기술대학 건물에 가글 디스펜서와 페이퍼 타올 디스펜서를 설치했다.

'항해'는 성과 간담회 공약의 일환으로 e-스포츠 대회 후 만족도 조사를 했다.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는 SNS 계정에 공약 이행률을 게시하기도 했다. 6월에는 과학기술대학 건물에 아이디어 박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희망행사를 제안받았다.

보건대 학생회 물품 예약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대학 학생회인 '에피소드'는 13개 공약 중 ▲대여 물품 예약시스템 도입 ▲대여 물품 보수 ▲변기 커버 소독제 설치 ▲예산내역 공개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 진행 ▲학회장 직접 소통창구 개설 ▲느린 우체통 행사 ▲생일자 행사 등 8개 공약을 이행했다.

'에피소드'는 4월에 대여 물품을 예약할 수 있는 전용 오픈 채팅을 개설하는 등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월 대여 물품을 점검하고 충전기와 우산을 보충하기도 했다. 5월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 진행'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대여용 보드게임 보충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6월에는 보건복지대학 건물 화장실에 변기 커버 소독제를 설치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감사장부 공개를 진행했다. 1,2학기 희망 목표 타임캡슐을 만드는 느린 우체통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2학기 시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일을 맞은 학우 중 신청자를 받아 상품을 주는 '생일자 행사'의 당첨자 인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백월'은 출판사와 협의해 1학기 전공 서적을 할인하여 판매했다. 제휴업체를 확대하여 예술체육대학 학우들이 교동택지뿐 아니라 강릉 시내와 경포에서도 서비스 음식 제공 등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백월'은 4월에 노천극장에서 예술체육대학 신입생에게 학생회의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백월'은 스토리 올리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경품을 주는 '백월의 달' 행사를 매달 진행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참여 안 한 선거에 … 줄어드는 학생 복지

단과대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 온 인문대학, 생명과학대학은 1학기 동안 각각 3개의 학생 복지 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학생회 체제로 운영되는 6개 단과대학이 1학기 동안 이행한 공약 개수 평균의 29%에 그친다.

인문대학 비대위 '단비'는 ▲단과대학 축제 부스 운영 ▲체육대회 개최 ▲시험 기간 간식 제공을 했다. 생명과학대학 비대위 '여울'은 ▲바우길 걷기 행사 개최 ▲단과대학 축제 부스 운영 ▲체육대회 개최를 했다.

비대위는 구성원의 동기부여 부족, 후생 복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 복지 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 결성된다. 2024년도 우리 대학은 9개 단과대학 중 약 33%인 3개 단과대(인문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위 체제의 학생 복지 문제와 관련해 생명과학대학 비대위 '여울'의 박예진 위원장(해양바이오식품학과 22학번)은 "비대위 부서의 각 장은 각 학과 학회장이다. 그 때문에 업무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자진해서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기에 초반에는 참여도와 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인문대학 비대위 '단비'의 김민규 위원장(중어중문학과 19학번)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지만, 인문대학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수고해 주는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생복지과에 따르면 학생회와 달리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임원진이 학과 학생회 업무와 비대위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 비대위 활동에 대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학생 복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대위 결성 시 대학 회계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후생 복지비가 삭감되는 것도 학생 복지 활동을 추진함에 걸림돌이 된다. 김민규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후생 복지비 금액 중 일부를 제하고 수령하게 되어있어서 학생활동이나 복지에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현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19학번)에게 확인해 본 결과 "2024학년도 비대위의 후생 복지비는 단과대 학생회가 수령하는 후생 복지비의 70%로 산정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후생 복지비가 학생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어진 학우(데이터사이언스학과 19학번)는 "후생 복지비가 학생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크게는 단과대 축제, 대동제, 체육대회 등 행사 진행과 작게는 물품대여에도 사용된다. 자연과학대학 '위하여'의 공약들이 대부분 후생 복지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제현 총학생회장은 "후생 복지비가 비대위와 학생회에 똑같이 지급될 경우 학생회 선거 참여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기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예외적으로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구성된 임시기구이다 보니 학생회와 비대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학생 복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생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은 선거가 해당 단과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감소시키고 있다. 비대위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해당 단과대 학생들이 받는 학생 복지 수준의 저하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김민규 비대위원장(중어중문학과 19학번)은 "이 자리를 빌려 인문대학 학우분들의 많은 복지와 활동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있을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세경 수습기자

우리 손으로 뽑는 대학 마스코트 · · · 공식 사용은 시기상조?

'마스코트 공모전' 재학생 839명 투표

총학생회 설화가 출범하면서 우리 대학과 해람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 '해람 Develop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 '마스코트 공모전'도 이 일환으로 최근 진행됐다. 이 공모전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재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주간 총 79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이어 6월 17일부터 3일간 재학생 대상 투표가 진행됐다.

21일 총 839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수상작을 포함한 상당수 작품의 공통점은 용을 기반으로 한 마스코트를 디자인했다는 점인데, 우리 대학의 상징 동물이 '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5번 작품인 '해뇽이'와 32번 작품인 '강릉원주대를 글씨로 형상화한 용'이 각각 149표를 받으면서 공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기상은 18번 작품(141표), 40번 작품(119표), 11번 작품(115표)으로 3등까지 수상하였다. 대상에게는 100만원 장학금(공동 수상으로 각 50만원)이, 인기상 1,2,3등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향후 마스코트 활용 방안에 대해 이제현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19학번)은 "공동 수상을 한 두 작품은 우선적으로 대동제에서 활용해 볼 생각이며, 마스코트 공모전에 이어 마스코트를 활용한 굿즈 공모전 등을 고려했으나 공모전 기간, 굿즈 제작 소요 기간을 고려해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해람 Develop 공모전'에 대한 다른 방안을 탐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학생이 바라본 공모전과 직면한 실현성의 문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김대원 학우(철학과 20학번)는 해당 공모전에 대해 "공모 기간이 길었지만 시험 기간과 겹친 탓에 비교적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아쉬웠다. 또한 2026년 강원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마스코트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솔직함 마음을 내비쳤다. 다만 "수상작들의 완성도가 높아 실제로 우리 학교의 공식 마스코트로 사용된다면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의견 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역시 통합에 따른 마스코트 활용 건에 대한 문제였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재학생의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학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본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현 우리 대학은 '강원 1도 1대학을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를 내세워 정부의 '글로컬 30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에 강원대학교와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이 공식 마스코트로 사용된다고 해도 통합 과정에서 마스코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우려에 총학생회장은 "출품작과 수상작을 토대로 대학 본부에 전달을 할 예정이다. 대학 본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수상작이 공식 마스코트가 될지를 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통합 건에 대해서는 "강원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대학을 기억하고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공약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기억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은 많은 재학생이 참여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통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다른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만큼 총학생회는 대학과의 협력과 재학생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Develop 공모전과 마스코트 수상작의 새로운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준기 수습기자



▲ 5번 작품 '해뇽이'(왼쪽)와, 32번 작품 '강릉원주대를 글씨로 형상화한 용'(오른쪽)이 각각 149표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진제공 = 수상자

나를 이해하는 길 '학생 상담 센터'

최근 청년 우울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상태 조사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의 비율이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지난 학기에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우울증 검사(KDS 한국우울증검사)를 진행, 5월에는 '스몰 #정신건강 마음방역 캠페인'이라는 표제로 강릉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이 심리검사, 정신건강 24시 상담을 안내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심리상담,
"개별상담업무에 더욱 집중"

우리 대학 우울증 검사 결과에서는 고위험군 학생이 평균 3.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 연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시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인계하는 조치를 했다. 정보준 상담사는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테스트 결과를 통해 자진해서 방문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작년까지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자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개인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개별 상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성공지원과 및 학과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또 다른 방문의 이유,
나를 알기 위해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막연히 정신건강, 교우·가족관계를 상담 주제로 떠올리기 쉽지만, 자아탐색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유연한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과 직업·진로상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강릉캠퍼스에는 공대, 예체대, 치과대 학생들을 담당하는 최미화 상담사와 인문대, 사과대, 자연대, 대학원 학생들을 담당하는 정보준 상담사가 상담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전공별 개별화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원주캠퍼스에는 임경진 상담사가 원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맡고 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7명의 객원 상담사 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재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학기와 방학기간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심리상담은 ▲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기이해에 대한 갈피가 되기도 한다. MBTI 검사부터 전문적인 심리검사인 ▲MMPI-2 ▲인성검사 ▲자기방어기제 검사 등 다양한 성격·심리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 모든 검사 비용과 해설은 무료로 진행된다. 표준검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참여가 가능하며, 검사 결과의 해석은 대면 혹은 온라인 ZOOM 미팅에 참석해 받아볼 수 있다. 강릉캠퍼스는 학생회관(C3) 218호, 원주캠퍼스는 학생복지관(W11) 307호의 상담실에서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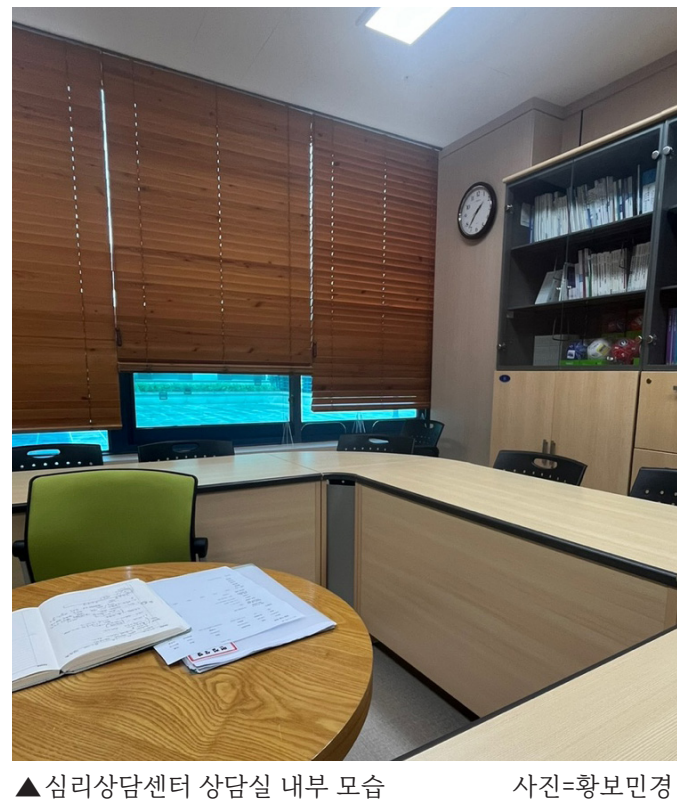
진로 고민도 해결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의하면 가장 많은 방문 요인은 졸업 학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 고민은 진로·직업상담을 하는 잡카페(Job Cafe)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흥미검사 ▲CTI 진로사고검사 ▲U&I 학습유형검사 등 전문적인 테스트로 직업 적성과 진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목표가 막연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취업 전략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 졸업까지 마지막 학기를 앞둔 재학생이라면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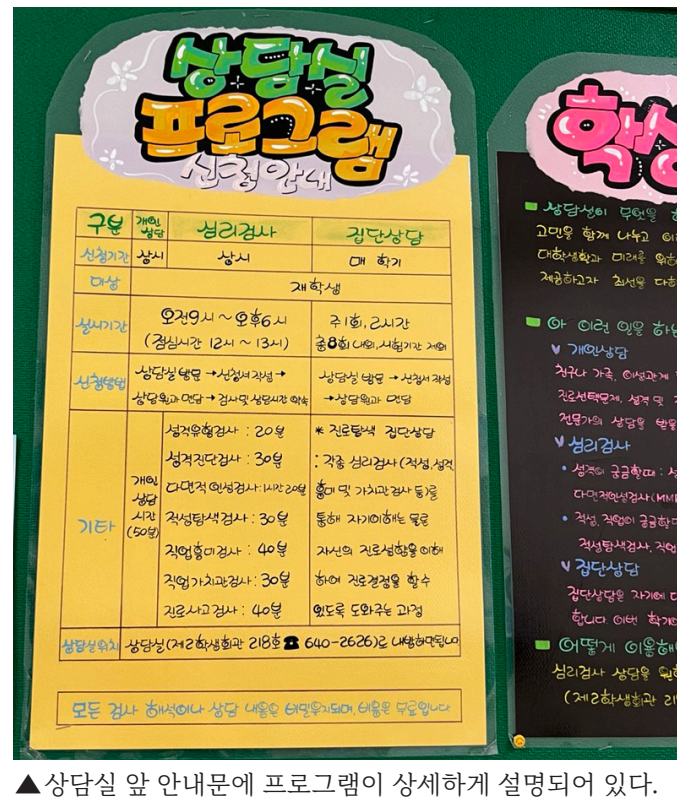
마음 편히 방문하자!

모든 학생상담센터가 예약 우선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적이다. 직접 방문, 전화, 하이시스템(전문상담센터▶심리상담/진로·취업상담)을 통한 접수로 예약이 가능하며 일정에 따라 당일 예약 상담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담이 우선 배정된다. 정보준 상담사는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교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심리상담 및 다양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이용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해 보길 바란다.

황보민경 기자



▲심리상담센터 상담실 내부 모습 사진=황보민경



▲상담실 앞 안내문에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사진=황보민경

구분	전체 인원(명)	참여 인원(명)	고위험군(명)
강릉 캠퍼스	4,885	3,221	164(3.4%)
원주 캠퍼스	2,032	1,411	69(3.4%)
학교 전체	6,917	4,632	233(3.4%)

▲ 우울증 테스트 참여 인원과 고위험군 학생의 비율 (제공=학생상담센터) (2024년 5월) (*고위험군: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점 교류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 어디든!

우리 대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외에도 국내 대학 학점 교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학생이 많다. 학점 교류제도란, 타 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내 대학 학점 교류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운영되고 있다. 신청 시 학점 교류 기간 중 사용할 학번이 부여되어 생활관과 도서관, 천 원의 아침밥 등 학내 모든 시설을 본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의 평점 평균이 B0 이상인 자, 학칙에 의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남아있는 학기가 있는 자(졸업 예정자 제외)에게 주어진다. 정규학기 신청 시에는 이러닝을 포함한 학내 수업 및 OCU 동시 수강 제한, 해당 학기 복학 대상자 신청 불가 등 추가 제한 요건이 있다.

이번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타 대학 교류 수학 신청은 4월부터 ▲충북대 ▲강원대 ▲안동대 ▲충남대 ▲금오공과대 ▲서울시립대 ▲창원대 ▲부경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목포대 ▲제주대 ▲군산대 ▲공주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가오는 9월 정규학기 타 대학 교류 수학 안내는 7월에 있었으며, 수강하고자 하는 학기의 2~3달 전부터 공지가 되니 기한에 맞춰 자세한 수학 안내문과 대학별 세부 일정 등 학사정보에 공지된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제주대학교, 이색 강의와 관광까지

특히 인기가 많은 제주대학교 하계 계절 수업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오름 트레킹 ▲스킨스쿠버 ▲요트 ▲말 임상 실습 ▲노르딕 워킹 등의 이색적인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 3주간 제주도에서 지내며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관광도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단, 제주대학교 원격수업 신청자는 대면 시험인 경우에만 학생생활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특성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올해 제주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교류 수학 신청 인원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작년 하계 방학 입주생이 548명이었던 데 비해 올해 입주생은 1,312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에서는 “신청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본래 예정되었던 생활관 보수공사 계획을 미루고 추가 개방하게 되었다. 특히 여학생 신청 인원은 남학생 신청 수의 3배에 달했기 때문에, 여학생 호실의 추가 개방이 많이 이루어졌다.

동계 방학에는 신청 인원이 적어서 원격수업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개방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제주대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급격한 신청 인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요트나 오름 트레킹과 같은 이색 강의들은 원래 예전부터 늘 인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대학생이 제주에서 저렴하게 한 달 살기 할 수 있는 법’으로 올라오며 입소문이 난 게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대학교 교류 수학에 관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학교 학점 교류생으로 참여한 이세영 학우(강원대학교 경제학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류 수학 정보를 얻게 되어 신청하였다. 계절학기를 통해 학점도 챙기면서 관광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오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조금 힘들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잘 신청한다면 강의 내용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점교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제주대학교 오름 트레킹, 요트 수업을 수강하며

오름 트레킹 수업을 수강한 이성록 학우(경북대학교 임학과)는 “제주대 학점교류를 다녀온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신청하게 되었다. 오름 트레킹은 제주대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라는 점과 집중 강의 형태로 일주일만 수업한다는 장점이 있어 수강신청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수업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을 걸어 다니며 트레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트레킹 코스의 난도가 높은 편이었고, 더운 날씨 탓에 힘들어하는 수강생들이 꽤 많았다. 본인의 체력이 좋지 못하다면 신중히 고민해 보고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업의 후기를 전했다.

교류 수학 신청 목적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지내며 많은 장소와 볼거리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색 강의가 아니었더라도 어떤 과목이든 수강 신청해서 제주대학교로 왔을 것 같다. 그 결과 많은 경험과 추억을 안고 돌아왔기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회상했다.

요트 수업을 들은 임은세 학우(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수업 진행에 대해 “간단한 용어 설명 및 심폐소생술 설명을 듣는 이론 수업과 실습이 병행되었다. 실습은 잠수복을 입고 모여서 요트 장비를 끌고 바다로 나가 진행했다. 수업 전에는 체조와 달리기, 입수를 하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바람이 없거나 파도가 심하다면 날씨가 좋은 날에 추가 수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해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수강 후기를 전했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팀장은 앞으로 신청하게 될 학생들에게 “우선 각 학교에 공지된 교류 수학 안내문을 잘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한 학생 중에서 수업을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생이나 제공된 편의시설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노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퇴실 과정에서도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이른 시간에 나가다 보니 퇴실 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활관 카드키를 깜빡하고 들고 가는 학생들이 있다. 관광 목적도 좋지만, 각 대학교의 대표로 교류 수학을 오게 된 만큼 지성인답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4년간의 대학 생활에서 타 대학의 수업과 시설을 이용하고, 타지역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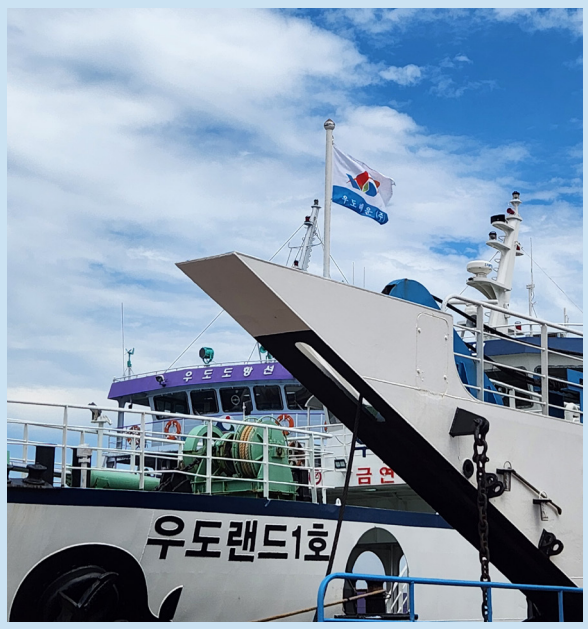




▲하계 계절학기 기간에 볼 수 있는 제주도 관광지 전경이다.



▲제주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캠퍼스 안내 지도이다.



▲제주대학교 교류 수학 기간에 우도 관광을 위해 배를 타는 모습이다.

김혜미 기자
사진=김혜미

막막한 취업의 길,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고민 덜어내자!

취업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이할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평소에 학점 관리와 대외활동, 토익 성적 등을 잘 관리하고 있던 학우들도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취업 시장에 '내던져질' 미래를 상상한다면 암담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정책 제도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 일자리 정보망'이다.

도내 강소기업 소개부터 취업 정보까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강원도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종합 일자리 정보 웹사이트이다. 도내 강소기업 홍보관부터 도내 기업 취업 정보 공공 채용, 전국 공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강원 강소기업체험홍보기관은 우수 기업에 선정된 강소기업의 주요 사업, 기업 현황, 기업 문화, 복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관심 있는 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현재 채용 중인 공고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인 구직 상담

일자리 정보망 사이트에서 주목할 수 있는 콘텐츠는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의 일환인 '온 도민 내일(job) 찾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구인 구직 매칭 상담,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온 도민 내일 찾기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만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도내 시·군 및 대학, 유관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면접 시 헤어, 메이크업 등 소요 비용 … 강원도가 구직 청년에게 직접 지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도가 "취업 준비를 위한 쿠폰"과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먼저 취업 쿠폰 지원 사업은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 간 제공하고 있는데, 3차 신청이 지난 7월 5일 마감됐다. 그리고 면접활동비 지원 사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1회 5만 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면접 소요 비용(교통, 헤어, 메이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한 취뽀 후기

'강원 일자리 정보망' 이용 후기에서 친구 소개로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알게 되었다는 김모 씨는 "여러 차례 취업 실패로 좌절하던 중에 사전 진단 서비스를 통해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적합한 직종을 추천받아 어느 기업에 지원할지 방향성과 목표를 세웠고 꾸준한 자소서 컨설팅을 통해 결국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용 후기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레고랜드 취업 박람회를 통해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접한 임 모씨도 "자소서 컨설팅부터 입사 지원까지 일자리 정보망에서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재활용 교환하고 생필품 받아 가자!

현대 사회에서 넘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는 필수이다. 쓰레기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분리수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 대학 근처 원룸만 봐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쓰레기들이 버려진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폐기물로 취급되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된다.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추진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란 가정 내 방치된 폐건전지 · 페트병 · 우유 팩 등 같은 재활용품을 주민센터나 재활용품 교환소에서 건전지와 화장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줌으로써 폐기물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강릉시에서도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8곳에 재활용품 교환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7월에는 우리 대학교 근처인 교1동 서부지구대 옆 주차장에도 생겼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다. 자세한 교환 물품은 다음과 같다.

*** 투명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
20개 반납 ▶ 종량제 봉투(10L) 1매 지급
40개 반납 ▶ 종량제 봉투(20L) 1매 지급

*** 젤타입 아이스팩**
5개 반납 ▶ 종량제 봉투(10L) 1매 지급
10개 반납 ▶ 종량제 봉투(20L) 1매 지급

*** 폐건전지/폐보조배터리**
폐건전지 10개 반납 ▶ 새건전지 1개 지급
폐보조배터리 2개 반납 ▶ 새건전지 1개 지급

*** 우유팩**
200ml 80개/ 500ml 40개/ 1,000ml 20개 반납 ▶ 화장지 1롤 또는 봉사활동 1시간 인정

이때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이나,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건조하지 않은 우유 팩과 물 아이스팩은 교환이 불가하다.

강릉시는 '재활용품 교환사업' 외에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사용 표시가 부착된 빈 용기 제품(소주, 맥주, 음료병)을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통해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반환금액은 100~350원이며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음료 용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각각 강릉



▲교1동 서부지구대 옆 주차장에 위치한 재활용품 교환소의 정면 모습이다.

사진=김도현

올림픽파크 육상보조경기장 주차장(교동)과 남대천 둔치(노암동) 2곳에 설치되어있다. 교동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암동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이 다르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운영 요일은 동일하다. 강릉시는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총 6곳에 설치했으며, 투명 페트병과 캔을 받고 있다. 개당 10원이 적립되며,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환전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김채원 학우(국어국문학과 21)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며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 기회가 된다면 집에 있는 재활용품들을 교환하러 한번 방문해 보겠다."라며 재활용품 교환소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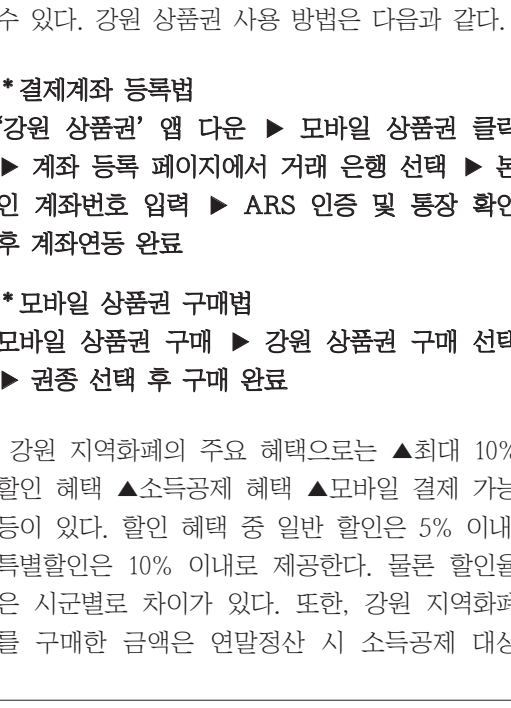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지구온난화.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필품을 얻어 생활비를 줄이고,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김도현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지역화폐

꺼진 상권도 다시 보자,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이다.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돕고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발행되었다. 지류형은 시군별로 종이 화폐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등을 농협 등 여러 은행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은 체크카드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은 스마트폰의 바코드 및 QR 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한다.



▲강원도 지역화폐 (지류형)

안 쓰면 손해, 강원 지역화폐의 혜택

강원 지역화폐는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강원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게 출입문에 '강원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곳이면 사용할 수 있다. 강원 상품권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결제계좌 등록법**
'강원 상품권' 앱 다운 ▶ 모바일 상품권 클릭 ▶ 계좌 등록 페이지에서 거래 은행 선택 ▶ 본인 계좌번호 입력 ▶ ARS 인증 및 통장 확인 후 계좌연동 완료

*** 모바일 상품권 구매법**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강원 상품권 구매 선택 ▶ 권종 선택 후 구매 완료

강원 지역화폐의 주요 혜택으로는 ▲최대 10% 할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모바일 결제 가능 등이 있다. 할인 혜택 중 일반 할인은 5% 이내, 특별할인은 10% 이내로 제공한다. 물론 할인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강원 지역화폐를 구매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에서는 소득공제 40%가 적용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강원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로 휴양을 즐기러 와, 강원 상품권 및 강원도 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저렴한 휴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 불분명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린 지역화폐가 10년도 안 돼 존폐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에는 1조 2,522만 원, 2022년에는 7,053만 원, 2023년에는 3,525만 원, 올해에는 3,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올해에는 예산 3천억 원이 확보되어 자체 예산으로만 감당해야 했던 지자체들은 한숨을 돌렸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지난해 자체 온라인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없앴다.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동백전의 사용도가 높은 '공공 배달앱 동백통' 사업을 앱 출시 2년 만인 지난 5월에 종료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e음 카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자, 정부 공모 사업을 공략해 국비를 지원받아 캐시백 혜택을 늘렸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의 구매 혜택을 후 캐시백 방식으로 바꾼다.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원도는 173억 4천만 원이 교부되었다. 춘천시는 국비가 새로 편성되면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7%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0% 특별할인 판매도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율이 10%인 속초시와 태백시도 발행액과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증액하였다. 강릉시는 8%에서 10%로 줄였던 할인율을 다시 올렸다.

지역화폐는 상품은 물론 학원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에 소비를 일으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호응이 높지만, 정부는 지역화폐는 자치사무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은 과연 맞는 선택일까?

송성운 수습기자

대남 오물 풍선과 GPS 교란 · · · 회색지대 전략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지난 5월 28일, 풍선을 매단 미확인 물체 260여 개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포착되었다. 초기에는 대남 전단(삐라) 살포로 예상하였으나 군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풍선의 내용물은 각종 생활 쓰레기와 풍선을 터뜨릴 목적으로 설치된 자폭장치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다음 날인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측의 GPS 교란이 이어졌다. 군 당국에서는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이행, 군사 훈련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에서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의 GPS가 오작동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점화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도발은 회색지대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이란 군사적 충돌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애매모호한 강압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무력 충돌 없이도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혼란을 조성할 수 있기에 현대 국제 관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추세이다.

북측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군사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색지대 도발 방식을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풍선에 오물이 아닌 VX(무색무취의 신경독)나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를 묻혀 보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서해안 쪽은 인천공항 등이 위치한 교통 허브 지역이므로 GPS 교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교통대란'은 물론 심각한 운항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대응은?

현재 대한민국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에서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이유 소개, 북한에 대한 국제 정세 그리고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를 해설하는 방송을 송출 중이다.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계속되는 대남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통해 심리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정책과를 대북 전략과로 전환 후, 대북 협상과 군사 회담 준비 업무 대신 인지전과 심리전 전략 수립을 주 업무로 변경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재산상 손해를 본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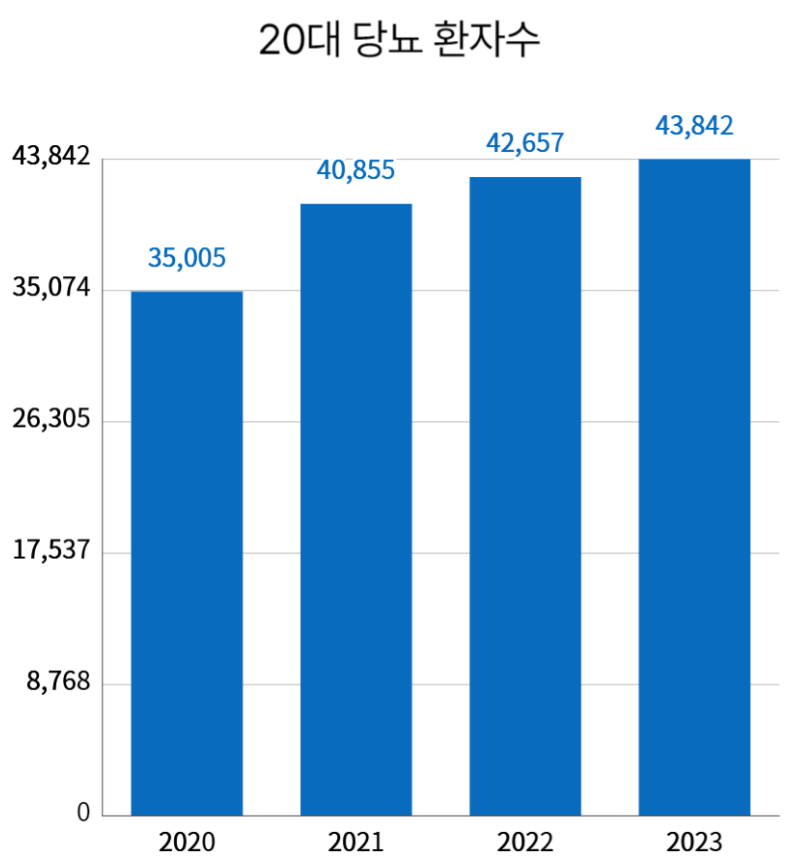
남북 관계, 과거와 현재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단 살포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남한 내 탈북민 단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전단을 살포하였고 이에 북측에서는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후 한국 헌법 재판소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직 휴전 중이며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정전협정 이후, 우리는 국제법상 전쟁 상태이지만 당사국 간의 협정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휴전 상태이다.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남 오물 풍선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그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소정 수습기자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청년 당뇨, 그 원인과 예방법은?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당뇨는 더 이상 고령층만 경계해야 할 질병이 아니다. 그동안 당뇨는 주로 40~50대의 중장년층이나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젊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는 이른바 '청년 당뇨'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 당뇨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20대 당뇨 환자 수는 35,005명, 2023년 43,842명으로, 지난 4년간 무려 34.37%나 증가했다.

청년 당뇨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식습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요즘 2030 청년들의 음식 트렌드는 '단맛'이다. 이미 청년층 사이에서 달콤한 디저트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 그리고 요즘 새로 뜨고 있는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나 달달한 음료 한 잔을 사 마시는 것 역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단맛' 나는 디저트와 음료가 청년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단맛이 강한 식품들은 대체로 당 함량이 높아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일 당 섭취량을 1일 총열량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로 권장하고 있다. 과일에 설탕 시럽을 굳혀 만든 탕후루는 당분 함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이다. 탕후루는 한 꼬치 당 평균적으로 18.1g의 당을 포함하고 있어 2개만 먹어도 하루 권고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요아정의 당류도 만만치 않다. 요아정은 그릭요거트의 당류 자체는 0.69g으로 그리 높지 않지만 보통 여기에 각종 토핑을 추가해 먹기 때문에 실제 당류는 이보다 훨씬 높다. 대표적인 요아정 인기메뉴로 꼽히는 그릭요거트+벌집꿀+그래놀라 조합의 당류의 총합은 27.99g(총 272.22kcal)이다.

카페 음료 역시 당류 함량이 높다. 우리 대학 내 이디야 커피전문점의 일부 메뉴에 함유된 당류 함량 비율을 살펴보면 커피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L)에 25g, 아이스 카페 모카(L)에 33g, 아이스 연유 카페 라떼(L)에 46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드 종류의 경우 당류 함유량은 자몽 포멜로 에이드(L), 머스캣 모히또 에이드(L), 꿀 복숭아 에이드(L)에 각각 41g, 33g, 39g이었다. 요즘 2030 세대에게 인기 있는 아샷추는(아이스티에 샷 추가) R사이즈 기준 당류가 39g이었다. 당류의 하루 적정 기준치가 50g인 것을 고려한다면 꽤 높은 수치인 셈이다.

게다가 카페 음료에는 체내 흡수가 과다하게 빠른 액상과당도 함유되어 있다. 구조가 단순한 액상과당의 특성상 고체인 설탕보다 몸에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 아니라 체지방 전환 속도도 빠르다. 또한 액상과당은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정상 분비를 방해하여 과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만,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 초기 증상을 방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당뇨 발병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당뇨를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당뇨 예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가급적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또, 만약 자신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태라면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합병증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당뇨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뇨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당뇨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多飮), 다뇨(多尿), 다식(多食)이 있다. 평소보다 갈증을 잘 느끼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당뇨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당뇨는 만성질환이므로 한 번 발병하면 평생을 혈당 관리에 유의하며 살아야 한다. 청년 당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제는 2030 젊은 청년들도 당뇨의 위험성을 깨닫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박지영 수습기자

탕후루 당류 함량

종류	당류(g)	종류	당류(g)
딸기 탕후루	9.9(10%)	블랙사파이어 탕후루	24.7(25%)
귤 탕후루	14.0(14%)	스테비아토마토 탕후루	20.9(21%)
샤인머스켓 탕후루	21.1(21%)	블루베리 탕후루	13.5(14%)
거봉 탕후루	15.6(16%)	애플포도 탕후루	22.3(22%)

▲자료 출처= 왕가네 탕후루 홈페이지 영양성분

언론원 수습기자 모집

GWNU 신문사

대상 | 국립 강릉원주대 재학생

활동 | 정기 신문 · 잡지 발행 및 신문사 기자 활동

혜택 | 기자증 발급 / 원고료 지급 / 신문사 사무실 제공

가입신청 | 033-640-2614



급발진 사고로 떠나보낸 아들…입증 책임은 유가족 몫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불거진 제조물 책임법 개정(일명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6월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유가족 측은 〈도현이법〉을 알리기 위해 택시와 점포 등에 대국민 호소문을 부착하였고, 그 결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한 60대 할머니가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왕복 4차선 경계석을 들이받아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동승한 친손자 이도현 군(당시 12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EDR(Event Data Record-사고기록장치) 분석만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도현 군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에 대한 책임 입증은 유가족(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지 못하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못하고,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기자는 〈도현이법〉 제정에 힘쓰며 제조사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훈 씨(이도현 군 부친)를 만나보았다.

Q. 요즘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오늘로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600일째 됩니다(7월 27일 기준). 도현이를 떠나보낸 직후 6일 동안은 심적으로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6일 뒤 도현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서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도현이를 다급하게 외치는 어머니 목소리와 주변 CCTV 영상들을 확보한 순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내왔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기쁨이었던 도현이는 슬픔으로 바뀌었고,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은 붕괴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마주할 수 없고 아내와도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Q. 사고 이후 현재 도현이 할머님의 건강은 호전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사고 이후 6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은 회복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육체적 건강도 일상생활은 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지만, 평소 50kg 정도였던 몸무게가 사고 이후 40kg도 안 되는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마주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 차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7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되었다. 이번 국회에 특별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A. 22대에서는 21대와 달리 성립 조건 5만 명을 달성해도 기간 내에 계속 국민 동의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만 국회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국민동의청원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전국 맘 카페, 대학 게시판, 자동차 카페 및 커뮤니티에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강릉, 동해, 속초에 150곳이 넘는 점포와 1,000여 대의 강릉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국민 호소문]을 부착했습니다. 그 결과 9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많은 국민의 공감에 힘입어 제조물 책임법 개정 청원은 재동의가 이루어졌고, 공론화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한 '급발진'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증명하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입증 책임이 전환되겠습니까. 현시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Q. 재연 시험 이후 EDR의 신뢰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사가 반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EDR은 에어백이 터지며 전개될 때 ECU(Electronic Control Unit-전자제어유닛)가 EDR에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와 사고 당시 5초 동안의 차량을 기록한 장치일 뿐, 운전자의 작동-조작 행위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과수나 제조사도 EDR의 기록이 운전자의 조작 행위로 기록된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석과 증명은 못하면서 EDR 기록만을 가지고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게 합니다. 국과수도 사고분석의 한계 때문인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실도로 주행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조건으로 정확하게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주행시험이었습니다. 사건을 똑같이 재연하는 것이 아닌 국과수와 제조사가 주장한 페달 오조작의 경우를 상정하여 액셀 페달을 100%로 밟았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재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EDR의 결과가 잘못되었고, 과학적으로 EDR의 신뢰성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주관하여 실시했고, 전문 드라이버까지 섭외하여 실도로에서 진행했음에도 제조사는 이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Q. 6월에 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하다.

A. 지난 6월 18일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 시기에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국과수의 잘못된 분석에 대한 내용 기재와, 지난 4월 실도로 재연 시험 결과에 대한 제조사의 반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조사는 EDR 분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입장에 따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액셀 페달로 착각한 페달 오조작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연 시험에서 국과수의 EDR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자,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 페달을 풀로 밟지 않고 밟았다, 뗐다 하는 식의 운전을 했다며 주장을 바꿨습니다. 재판은 "비공개 감정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감정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제조사, 국과수와의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힘이 되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다.

A. 소송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실질적 상대가 국과수라는 사실과, 국과수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제조사는 국과수 뒤에 숨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과수가 EDR 분석만을 가지고 운전자의 과실이라 주장하기에 제조사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경제적 약자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차량 설계도면 하나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국과수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도현이는 없는데 이렇게 진행해서 뭐 하나' 하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도현이가 "아빠, 앞으로 또 이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급발진 진실 규명과 〈도현이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Q. 현재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도현이법〉은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며, 급발진 사고 방지 장치인 급가속 제압장치와 같은 기술적 대책 마련까지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난 3월 EU에서는 '청구인이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함 원인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EU 개정 제조물 책임법 지침 제10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 법안에 맞춰 개정해야 하고, 대한민국도 선진화된 EU의 입법 예를 반영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A.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면서 각 대학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린 결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법안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점화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과 더불어 총선 전 매번 민생과 민의를 외치며 서민의 편에 서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이 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는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다시 한번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유가족은 다음 재판이 10월 22일에 열릴 예정이고, 민사소송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형사 사건은 민사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수없이 발생하지만, 인정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차량은 대부분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6월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예가 없다는 이유로 〈도현이법〉 제정은 힘들다고 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정위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고 피해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머물러 있다. 국가 기관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도현이법〉 제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김민수 수습기자





▲ 2022년 12월 6일 홍제동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 군 사진제공=유가족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사건기록을 정리한 QR코드

평범함과 비범함 그 사이에서 일상을 조명하며

영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亀は意外と速く泳ぐ,(2005)〉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이 영화는 포스터와 제목부터 엉뚱한 기운을 내뿜으며 호기심을 산다. 그런데 정말로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칠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영화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설령 정말로 거북이가 등장하더라도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정말로 거북이가 빨리 헤엄치는가에 대한 근거는 커녕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은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다.

평범을 넘어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는 주부 스즈메.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간 남편 대신 애완용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는 삶이 평범하게 반복되던 그때, 우연히 손톱만 한 크기의 '스파이 모집공고'를 발견하게 된다. 무심코 전화를 건 그녀 앞에 나타난 쿠기타니 부부는 자신들이 '어느 나라의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스즈메를 스파이 업무에 끌어들인다. 스즈메가 스파이 업무에 제격이라 판단하게 된 것은 바로 그녀가 평범하기 때문이었다. 비범하리만큼 너무도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범한 것이 아니냐는 쿠기타니 부부의 말. 나는 여기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조명할 필요를 느낀다. 설거지, 빨래, 방바닥 닦기와 같은 이 평범할 일 모두가 스파이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스즈메를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평범이라는 게 뭐지?, 평범하게
이불을 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에 위쪽을 놓는 게 평범한 건가?
아니면 뒤집는 건가?
이불을 터는 건? 널어놓고 바로 하는 게
정답? 아니면 걷을 때인가?"

평범한 일을 수행할 때, 귀납적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짚어 보면 의외로 어색함 투성이다. 이불 하나를 널 때도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면? 숨을 내뱉고 마시며 호흡하는 일도, 앞발을 내디디며 걷는 일도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경우의 수에 따라 귀결된 흐름과 그로 인한 일상의 평범은 과연 평범한 것인가?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그러므로 평범하다고 넘겨온 모든 것들에는 의외의 부분이 있다. 쿠기타니 부부와 몇 번 만난 뒤 스즈메가 깨달은 부분과도 같은 맥락이다. '멈추시오'라는 표지판 중에는 가끔 '멈시추오'라는 오타가 있다는 사실, 메추리알 100개를 부치면 맛이 없다는 사실, 비닐우산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이상한 물풍선이 돼버린다는 사실, 설탕 과자를 하룻밤 물에 담가 놓으면 엄청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 별거 없을 것 같은 일상에도 여러 뒷모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메세지는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 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의식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우연한 상황들이 이어지며 이 영화를 이끌어 간다. 이를테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거북이 먹이가 수도를 막아버리거나, 갑자기 라멘이 먹고 싶어진 스즈메의 친구 쿠자쿠를 따라 라멘집에 가게 되는 이 엉뚱하고 우스운 흐름은 여느 삶이 그렇듯이 뜬금없으면서도, 결론으로 향할수록 모든 것이 복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식의 복선이었는지는 엄청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언급은 뒤로 하겠다- 평범한 것 같았던 일상 속에서 반전을 발견하게 하는 이 영화처럼, 일상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비범한 삶을 개척해 나가자는 의지에 차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 걸까. 해답 역시 의외에 부분에 존재한다. 친절하고 다정하게도 이 영화 속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스파이 권유를 받아들인 스즈메는 코기타니 부부로부터 곧바로 활동자금 500만엔을 받게 된다. 아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하고 난색을 표했던 스즈메의 걱정과는 달리 해야할 일은 평범했다. 얌전히 본부의 지시를 기다릴 것, 그런데 그 본부에서의 지시마저 12년 전이라는 점이 피식 웃음 짓게 한다. 어쨌거나 이젠 스즈메의 냉장고 속에는 활동 자금 500만엔이 있다. 그 500만엔은 가끔 들여다보며 '훳훳했'하는 수상한 웃음 짓기, 스파이가 된 기념으로 선글라스를 구매하기, 촌스럽다고 지적 받은 영구파마를 복구 시키는데 사용될 뿐이다. 스즈메가 평범한 삶을 견디기 힘들 때 힘이 되어주던 500만엔은 사실 엄청난 역할을 쥐고있지 않았다. 마음 속 냉장고에 들어있는 조그만 위안거리인 것이다. 어쩌면 스즈메의 500만엔처럼 작은 위안거리를 마음 속 냉장고에 저장해본다면 우리가 삶을 수행할 때 비범함을 발견할 틈이 되어주리라...!

언젠가, 스즈메는 늘 센스있고 활달하기에 늘 동경의 대상이었던 친구 쿠자쿠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어릴 때부터 쿠자쿠에게는 항상 지는 느낌이었던 스즈메는 굉장히 의아할 수 밖에 없었다.

"갑자기 스즈메가 부러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스즈메에 비하면, 내 인생은 시시한 것 같아 "
"뭐? 너야말로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
"이것저것 많이 하면 말이야.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게 되어버려"

하지만 이 영화의 끝 무렵을 지켜보다 보면 쿠자쿠의 말이 왠지 동감하게 되는 기분에 휩싸인다.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

다시는 찾지 않을 나의 천국, 안녕 느릅나무

문학 『느릅나무 아래 숨긴 천국』



"운명은 말이지, 전혀 소란스럽게 찾아오질 않아. 깊은 밤 도적처럼 밀려온다. 만약 세상이 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들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로 온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

우연히 접하게 된 이 몇 줄의 문장은 깊은 밤 도적처럼, 낙엽 떨어지는 소리로 나를 두드렸다. 단숨에 매료되어 찾아든 이 책은 운명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예언이라는 것을 몰랐던 주인공처럼 나는 이 이야기의 끝맺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

누군가 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는 걸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책에는 훗날 후회에 젖어 그들이 다름 아닌 나의 일부였노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의 솔직한 심정이 잘 담겨있다. 주인공 문하는 형의 우울한 잿빛 면모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해오던 자신을, 두고두고 가슴에 안은 채 남은 생을 한없이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 끝없는 비유로 이어진 문장들의 나열 과정을 보고 있자니 문하와 인하 두 인물 사이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며 독자인 나까지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형은 사랑하는 하연과 엄마를 잃고는 밤하늘에 잘 어울리도록 케페우스와 목자자리 사이에 묻는다고 했다. 사랑이 아름다움으로만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하는 형이 사랑하는 애인을 질투하고, 인하는 동생을 할퀸 고양이를 죽여 묻어버리는 기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아름다운 문장들로 섬뜩한 장면들을 묘사하는 문장들을 보면서 이유 모를 두려움이 동반되었다.

"아픔과 슬픔이 없다면 사랑은 고집이 되기 쉬울 것이다. 한데 아픔이 없는 데다가 슬픔마저 없으니 사랑 또한 있을 리 없었다."

이는 곧 주인공이 때 묻은 일기장 하나 펼치는 행위를 마치 크나큰 재앙을 맞이한 듯 대하는 이유였다.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하던 오래된 일기장에는 주인공 문하의 주변 인물이자 '패배자들'이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 죽음이라 불리는 머나먼 여행을 떠난 자들이다. 주인공의 청춘을 함께 써 내려가면서 끝없는 결핍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미친 행동을 바라본 자들이다.

"슬픔의 극단 안에서 청춘은 결핍을
무릅쓰고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문학이란 답이 아니고 질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였고, 주인공은 청춘이 품은 여러 가지 소중한 질문들을 던지고자 하였다. 한없이 철학적이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책이라고 느꼈다. 나의 경험과 상상력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외설스럽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표현과 감정 묘사가 이어지다가도, 내가 모르는 저 너머의 세상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감동적 표현의 연속이었다.

소설 속 표현 마냥 '인간의 위선적이고 교활한 거짓말로 묘사된 일기장'과 '거짓말투성이 속에서 허구의 진실성을 찾아내는 소설'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나도 나만의 두툼한 한 권의 인생관을 엮어보고 싶어졌다. 그러한 책을 만났다는 사실은 내게 〈느릅나무 아래 숨긴 천국〉 그 자체였다.

국어국문학과 김혜미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문학 『그대 정동진에 가면』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학 강의에서 받은 한 권의 책. 처음에는 귀찮아서 책장 한 구석에 방치했다. 그러다 어느 날 책장 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을 꺼내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강릉을 배경으로 해서인지 책에 나온 지명들은 이미 내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그 덕에 나는 이 책에 좀 더 흥미를 갖고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책 〈그대 정동진에 가면〉은 주인공 석하가 어떤 일을 계기로 추억 속 그녀인 미연을 찾고,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인 석하는 평범한 작가이다. 그는 어느 날 동해의 사인회장에서 한 여성을 통해 그녀가 어릴 적 좋아했던 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아 흘려들었던 이야기지만 집에 도착해 곱씹어보니 그가 좋아했던 미연이 맞았다. 석하는 곧바로 미연을 찾기 위해 그의 어릴 적 고향인 정동진으로 떠났다. 이미 유명 드라마인 모래시계로 인해 정동진은 관광도시가 되어 석하의 추억 속 고향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신의 추억이 변모되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석하는 어릴 적 모습을 회상한다.

유독 가난했던 그의 유년 시절. 항상 산을 타시는 아버지와 집이 가난해서 나무를 해오거나 길에서 부서진 잔탄과 연탄을 주우러 다니던 일이 태반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미연을 만나게 되고, 잘 웃는 그녀의 모습에 석하는 남몰래 그녀를 마음속에 품었다. 학교 가기 위해 타던 기차 안에서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석하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미연을 찾아간 날 자신보다 상급생인 형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석하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 고백하지 못한 채로 정동을 떠나게 된다.

〈그대 정동진에 가면〉은 변화를 큰 폭으로 다루고 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어릴 적 모습과는 많은 것들이 변해있었다. 변한 것은 둘 뿐만이 아니라 고향인 정동진의 모습이었다. 사람이 없었던 정동진의 옛날 모습과는 달리 드라마의 흥행으로 인해 지금은 많아진 인파와 이로 인해 변화되는 정동진의 옛날 모습을 석하는 매우 안타까워한다. '문화 강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석하는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 작중 석하의 고백 장면에서 강릉과 관련된 설화인 헌화가의 언급과 두 사람이 만난 카페의 이름이 '꽃을 꺾어 바치고'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가는 그의 고향인 강릉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고향 사랑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토속적인 향이 물씬 느껴졌고,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이 변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석하를 통해 작가 본인도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이 변화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회는 '빨리빨리'를 요구한다. 무한 경쟁의 시대와 이기주의가 판친다. 사람들에게 여유가 사라졌고, 도파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한 번쯤 어릴 적 고향의 모습과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한 번쯤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현실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그대 정동진에 가면〉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어국문학과 김도현

당신의 작은 실천이 9명의 생명을 '9합'니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이 날은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이식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주관 하에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던 것이 계기가 되어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장기기증을 독려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매년 장기기증의 날이 다가오면 전국 곳곳에서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이들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억하고,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식인들을 응원하는 각종 기념행사와 홍보 캠페인이 펼쳐진다. 올해에도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나누고 더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생명 나눔 페스타'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Reborn, Restart 생명 나눔 퍼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장기기증,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 비해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2022년 실시한 장기기증 현황 조사 결과, 장기기증자는 405명, 장기기증 대기자는 4만 976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장기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장기기증자 수는 현저히 적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과 스페인의 뇌사기증률(명/인구백만명당)은 각각 38.03%, 37.40%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뇌사기증률은 9.22%에 그쳤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약 7.9명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기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뿐이다.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장기기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면

우리나라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하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사망한 후 실제로 장기를 기증할 때는 성인이라도 가족 중 1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해도 원칙상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면 평소 가족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등 장기기증 신청 기관에 접속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희망등록 신청은 온라인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기증희망등록 ▶ 신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나이, 주소 등)을 적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희망등록이 완료된다. 희망등록이 다 끝나면 며칠 뒤 우편으로 장기기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이면 된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장기기증의 날이 9월 9일인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신청하기 귀찮아서 나중으로 미루기 바빴다면 더 늦기 전에 당장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어떨까?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이 질병, 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장기기증의 날 기념 포스터 사진=박지영

박지영 수습기자



*위 사항을 준수하였으나 반려 당했을 경우에는 총학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컷 속으로



▲다가올 동아리 교류행사를 대비해 청춘해람에서 연습하고 있는 '전국오뎅협회'의 모습이다. 사진 제공='전국오뎅협회'

9월 12일 '국립 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동아리 교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정기 교류 행사가 찾아온 것이다. 5종목의 스포츠 경기, 동아리 체험 부스, 문화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푸드트럭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동아리 교류 행사 공연에는 우리 대학 밴드 동아리 '전국오뎅협회'도 참여한다. 드럼을 맡은 최태림 학우(조형예술디자인학과 19)는 "본래 가동아리는 교류 행사나 축제 같은 공연에 설 수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어 너무 좋다.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멤버들을 믿고 즐긴다면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관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김도현 기자

